

소크라테스 복귀... KIA, 더 치열해진 외야 경쟁



'호랑이 군단'의 외야 경쟁 2막이 올랐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가 소크라테스의 복귀와 함께 더 막강해졌다. 7월 2일 SSG전에서 코뼈 골절 부상을 당했던 소크라테스는 8월 2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이날 1군 풀업과 함께 2번 타자 겸 중견수로 나선 소크라테스는 깔끔한 수비를 선보였고, 세 번째 타석에서 복귀를 알리는 중전안타를 때려냈다. 추격전이 펼쳐지던 8회에는 우익수 방향으로 멀리 공을 날리면서 희생플라이로 타점도 올렸다.

KIA는 소크라테스의 타점으로 1-4의 승부를 4-4 원점으로 돌렸지만 경기는 아쉬운 패배로 끝났다.

4-4로 맞선 9회말 마무리 정해영이 선두타자 하주석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으면서 한화전 9연승이 마감됐다.

복귀전 승리 주인공은 되지 못했지만 소크라테스의 가세로 KIA 외야와 타선은 한층 탄탄해졌다.

2일 좌익수 이창진, 중견수 소크라테스, 우익수 나성범으로 외야를 꾸렸던 KIA는 3일에도 세 선수로 외야를 채웠다.

또 소크라테스를 강한 2번 타자로 내세워 이창진-나성범-황대인을 클린업 트리오로 해 최형우로 이어지는 타선을 구축했다.

2일 김선빈을 9번에 배치하면서 타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던 김중국 감독은 3일에는 김선빈을 7번으로 올려 타선의 집중력 강화에 나섰다.

소크라테스발 1차 외야 경쟁에서 생존한 이우성, 고종욱, 김호령은 후반전을 기다리고 있다.

소크라테스 강한 2번타자 자리 이창진·이우성·고종욱·김호령 수비로... 타격으로... 경쟁 2막

KIA는 소크라테스를 등록하면서 김석환을 말소했다. 김석환이 7월 시원한 2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등 남다른 파워는 보여줬지만, 김중국 감독의 선택은 꾸준한 이우성과 정교한 타격과 빠른 발을 겸비한 고종욱이었다.

이들과는 다른 유형인 김호령의 활용도도 관심사다.

김호령은 소크라테스가 부상으로 빠진 7월 중견수 자리를 지키면서 15경기에 출장했다. 49타수 12안타로 0.245의 타율을 기록한 김호령은 4타점도 올렸다.

김호령이 "밸런스가 좋지 않았다"면서 타격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수비는 명불허전이었다.

7월 8일 한화전 슈퍼캐치로 승리를 위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찍는 등 김호령은 "특급 수비"로 승리에 기여했다.

수비의 힘을 보여줬던 만큼 김호령은 후반기에도 KIA 순위 싸움의 전술 카드가 될 전망이다.

김호령은 "밸런스로 치고 싶은데 어떻게든 살아 나가려고 하니까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내 스윙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타격 밸런스에 신경 쓰겠다"며 "수비라도 잘해야 한다. 수비라도 잘하니까 기회를 얻는다. 수비하면 나를 떠올리고 편하게 생각해주셔서 좋다"고 수비로 어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소크라테스



이창진



이우성



고종욱



김호령



미국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4회에 2루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하성 4안타... 홈런 뺀 사이클링히트

샌디에이고 13-5 역전승 견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27)이 빅리그 데뷔 첫 4안타 경기를 펼치며 팀 역전승에 앞장섰다.

김하성은 3일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콜로라도 로키스와 더블헤더 1차전 홈 경기에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4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44에서 0.252(317타수 80안타)로 대폭 상승했다.

2회 첫 타석부터 김하성의 방망이는 날카롭게 돌아갔다.

1사 주자 없는 가운데 콜로라도 선발 라이언 펠트너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깔끔한 좌익수 앞 안타로 출루했다.

0-3으로 끌려가던 4회 1사 1루에서 맞이한 두 번째 타석에서는 슬라이더를 공략해 좌익수 쪽 깊숙한 2루타를 터트렸다.

김하성의 안타로 1사 2·3루 기회를 잡은 샌디에

이고는 오스틴 놀라의 희생 플라이로 1점, 트렌트 그리섬의 2점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5회에는 김하성의 배트에서 역전 결승타가 나왔다.

3-3으로 맞선 2사 1·2루에서 타석에 선 김하성은 제이크 버드의 초구 싱커를 때려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이때 홈까지 파고든 2루 주자 윌 마이어스는 처음에 아웃 판정을 받았지만, 비디오 판독 끝에 세이프로 번복됐다.

7회 내야 뜯공으로 숨 고르기를 한 김하성은 8회 마지막 타석에서 4안타를 완성했다.

무사 1루에서 타석에 등장해 타이 블락과 풀카운트 대결 끝에 외야 우중간을 가르는 1타점 3루타를 작렬했다.

단타 2개와 2루타 1개, 3루타 1개로 사이클링히트에 홈런만 빠진 맹활약이다.

김하성은 그리섬의 내야방볼 때 홈을 밟아 득점을 추가했다.

김하성의 활약을 앞세운 샌디에이고는 13-5로 역전승하고 3연승을 달렸다. /연합뉴스

정종범, KPGA 스틱스투어 첫 우승

2라운드 도중 기상악화... 18홀 경기로 축소

정종범(30)이 한국프로골프(KPGA) 스틱스투어 13차 대회(총상금 8000만원)에서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정종범은 3일 강원 원주 오크힐스CC(파71·6878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 도중 기상 악화로 인해 대회가 18홀 경기로 축소되면서 우승자로 결정됐다.

KPGA 스틱스투어에서 기상 악화로 마지막 날 경기가 취소된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이날 오전 6시에 시작한 대회 2라운드는 나뭇잎 동반한 우천으로 인해 총 5차례 60분 동안 지연됐다. 이후 대회 조직위원회가 1라운드 18홀 경기로 대회를 축소 운영하기로 하면서 취소됐다.

이에 따라 1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이글 1개, 보기 1개를 묶어 9언더파 62타로 단독 선두에 올랐던 정종범이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2010년 KPGA 프로(준회원), 2018년 KPGA 투어프로(정회원)에 각각 입회한 정종범은 2020년 켈리파잉 토너먼트(QT) 상위 입상자 자격으로 KPGA 코리아투어에 데뷔했다.

하지만 이후 시드 유지에 실패하면서 현재는 KPGA 스틱스투어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종범에 이어 조세익(26)과 김태우(24), 최이삭(42), 케빈 전(37)이 7언더파 64타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정종범(30)이 3일 강원 원주 오크힐스CC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스틱스투어 13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PGA 제공>

패트릭 리드, 제주 아시안투어 출전

LIV 골프 이적... 세계 랭킹 포인트 획득 노려

LIV 골프로 이적한 패트릭 리드(미국)가 오는 18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안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4차 대회(총상금 150만 달러)에 출전한다.

아시안투어는 3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리드가 8월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시리즈 3차 대회(총상금 150만 달러)와 18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4차 대회에 잇따라 출전한다고 전했다.

아시안투어의 인터내셔널 시리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지원을 받아 열리는 대회로 앞선 1, 2차 대회는 태국과 영국에서 개최됐다.

3000만달러(약 394억원)라는 거액을 받고 LIV 골프로 이적한 리드가 아시안투어 대회 출전을 결심한 것은 세계 랭킹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골프 전문매체 골프채널에 따르면 현재 세계 랭킹 46위인 리드가 내년 메이저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선 연말까지 랭킹 50위 이내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세계 랭킹 포인트가 부여되지 않는 LIV 골프에서 뛰는 리드로서는 아시안투어 출전만이 자신의 랭킹 순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대회당 2500만달러의 거액 상금이 걸린 LIV 골프에서 뛰는 리드가 고작 10분의 1 수준인 150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아시안투어에 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LIV 골프에서 뛰는 이나모리 유키(일본·세계 랭킹 81위)와 스콧 빈센트(짐바브웨·88위), 사뮈엘 카에칸자나(태국·94위)도 리드와 같은 이유로 아시



패트릭 리드

안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3·4차 대회에 출전한다.

2018년 마스터스 우승자인 리드는 여러 비난을 감수하며 LIV 골프로 이적한 뒤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대회 수가 적은 LIV 골프를 선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작 LIV 골프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세계 랭킹 포인트 획득을 위해 당초 계획에도 없던 아시안투어까지 출전하게 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